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강릉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1
江原日報	21면	“명절 제수용품·선물 전통시장서 준비하세요”	1
월드스타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전통시장 장보...	2
KBS 춘천	온라인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봉사 활동 실시	4
KBS	온라인	설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잇따라	5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공유 이 뉴스 공유하...	6
G1방송	온라인	강원자치도의회,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7
강원도민일보	22면	원주 찾은 김 지사 전통시장 장보기·복지관 배식봉사	8
江原日報	11면	횡성군 번영회장 이·취임식	8
江原日報	11면	횡성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8
江原日報		홍천군산림조합 제62기 정기총회 개최	9
뉴스신	온라인	홍천군 두촌면 기관단체장 2024년 신년 인사회 개최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함께 빛났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우리 ...	11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관광대 자진폐교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12
江原日報	14면	"지역 소멸 위기·상권 침체 가속화"	13
강원도민일보	04면	입학할 학생 점점 줄어... 도내 대학 4년에 한 번꼴 통폐합	13
강원도민일보	02면	삼성 평택공장 찾는 김 지사, 반도체 인력양성 협업 모색	14
강원도민일보	04면	18년 만에 의대생 2000명 증원, 도내 찬반의견 팽팽	14
강원도민일보	05면	필리핀 계절근로자 파견 중단 도내 지자체·농민 난감	14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시립미술관 2028년 개관 목표 속도전	15
江原日報	02면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대기업 유치' 관건	15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 주문진 5일장 '북적' 양손 가득 명절 준비	16
강원도민일보	06면	설 명절 날뛰는 물가잡기 강원도 나섰다	16
江原日報	10면	춘천 학곡지구 사업 승인 14년 만에 연내 준공	17
강원도민일보	04면	올해 1월 역대 6번째로 '포근'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소상공인 부채 심상치 않다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가정 폭력,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야 근절된다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대 증원 지역인재 선발로 이어져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인구소멸 대응 본보기 모델, 화천군의 ‘책임돌봄’	21

강원도민일보

2024 02 07 ()

02



도의회 강릉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설 명절을 맞아 6일 강릉 사회복지시설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2024 02 07 ()

21

“명절 제수용품·선물 전통시장서 준비하세요”

도의회 강릉서 장보기행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상인들을 응원했다.

권혁열 도의장, 박호균·심오섭·김용래·최승순 도의원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6일 강릉 주문진시장에서 장을 보며 전통시장 소비 촉진에 앞장섰다. 이들은 ‘설맞이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제수용품과 가족·친지에게 전할 명절 선물을 구매하며 경기 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6일 강릉 주문진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상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장 운영과 관련한 민심을 듣고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도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날 장보기에 앞서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도내 복지시설 2곳도 방문했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

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2024 02 06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김용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의장 권혁열)는 설 명절을 맞아 2024년 2월 6일 도내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먼저,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도내 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강원도의원,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은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 일원에서 소비촉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오늘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 기초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극복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여러분을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힘든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KBS 춘천

2024 02 06 ()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봉사 활동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청 공무원들은 오늘(6일), 원주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점심 식사 배식 봉사 활동을 하고, 중원시장과 도레미시장을 방문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도 오늘(6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백여 명도 오늘(6일)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아 설 장보기를 하고, 강릉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2곳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고순정 flyhigh@kbs.co.kr

2024 02 06 ()



설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잇따라



[KBS 강릉]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잇따라 진행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6일)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설 장보기를 진행하고, 강릉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2곳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동해시도 내일(7일) 동쪽바다중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는 등 자치단체와 각급 기관단체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이나 장보기 등을 진행합니다.



2024 02 06 ()

강원도의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공유 이 뉴스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카카 오스토리 페이



(출처=연합뉴스) 6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 수산물 시장에서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의장(오른쪽)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장을 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2.6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강원도의의회 #전통시장

2024 02 06 ()

G1방송

강원자치도의의회,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강원자치도의의회,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주요뉴스 - 도로교통공단 "경영권 달라 관여 못 해"

강원자치도의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6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권혁열 의장과 도의원,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은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강원자치도의의회는 또 도내 복지시설 2곳을 찾아 각각 위문금 천 5백만 원을 전달하고, 취약 계층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7 ()

22

원주 찾은 김 지사 전통시장 장보기·복지관 배식봉사

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설명절을 앞둔 6일 원주에서 전통시장 장보기와 노인복지관 배식봉사에 나서며 민생현장을 살폈다. 김 지사는 이날 점심 시간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를 펼쳤다. 밥 배식을 담당하는 김 지사는 어르신들에게 명절 인사와 안부를 건네며 온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원주 중앙·중원·자유·도래미시장 일대에서 도주관의 '설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 먹거리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 김태훈 원주부시장, 김기홍·박길선·원제용 도의원, 권오광 도 경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6일 원주에서 열린 설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이기영

진흥원장, 이강우 원주소방서장, 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어 지역 아동양육시설인 심향영육아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권혜민

江原日報

2024 02 07 ()

11



횡성군 번영회장 이·취임식 횡성군 번영회장 이·취임식이 6일 군청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한창수 강원 자치도의회 부의장, 박순걸 횡성소방서장, 표한상 군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석병진 신임 회장이 취임하고 권용준 회장이 이임했다.

江原日報

2024 02 07 ()

11

횡성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횡성】횡성지역 설 대목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횡성군은 6일 유상범 국회의원,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표한상 부의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과 최규만 도의원, 김은숙·정운현·박승남 군의원, 황광열 횡성시장조합장, 공

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횡성 시장과 5일장 일원에서 장보기 캠페인을 펼쳤다.

군청 공무원들과 횡성시장 조합원들이 함께 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장보기를 함께하며 전통시장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江原日報

2024 02 06 ()

홍천군산림조합 제62기 정기총회 개최



홍천군산림조합(조합장:박유봉)은 5일 k컨벤션 웨딩홀에서 제62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영록 홍천군의장, 홍성기 도의원, 김완수 홍천군 경제진흥국장, 박영선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홍천군 산림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 및 조합원에게 감사패·공로패와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박유봉 조합장은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수있었던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해 발전하는 조합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 02 07 ()

홍천군 두촌면 기관단체장 2024년 신년 인사회 개최

남원모 기자



홍천군 두촌면 기관단체장 2024년 신년 인사회 개최

[뉴스신] 두촌면이장협의회는 지난 5일 가람밸리리조트에서 2024년 두촌면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록 군의장, 홍성기 도의원, 나기호 군의원 및 이장협의회원, 각 기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두촌면이장협의회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배상철 두촌면이장협의회장은 “두촌면은 번영회가 부재하여 신년 인사회 개최가 없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두촌면 신년 인사회가 활성화되고 두촌면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경숙 면장은 “작년 한해 이장협의회 및 기관단체장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두촌면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전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7 ()

19

함께 빛났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우리 다시 만나요

의정칼럼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강원2024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지난 2월 1일 폐회식을 끝으로 14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은 1988 서울하계올림픽,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번째로 개최되는 올림픽이자 특히, 최초로 아시아에서 개최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강원'이라는 지역 명칭을 부여받은 유일한 올림픽이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우리함께 빛나자'를 주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빛이 어우러지는 거대한 우주속에서 청소년들이 주인공이고 빛나는 존재'라는 내용을 담은 개회식과 '다시 빛나자'를 주제로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발견한 자신 안의 빛을 다시 빛내자"는 이야기를 담은 폐회식의 스토리처럼 대회 기간 총 78개국 1800여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각국의 선수들은 경기를 통한 단계 더 성장함은 물론이고,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빛나는 대회를 치렀고 다시 빛날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직위를 비롯해 정부의 관심과 개최 시군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경찰서, 소방서, 자원봉사자, 시민 등 각계 관계자들의 노력과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모두의 관심속에 응원받으며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대회 개최의 결과는 추후 분석해야겠으나 경기장은 막바지로 갈수록 경기장은 구름관중을 이루며 대회의 열기를 고조시켰으며 특히, 피겨스케이팅은 최고 인기 종목을 입증하며 평일 1만 2000여 명이 넘는 관중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최 지역 인근 상가는 'K-푸드(food)'에 매료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붐비며 올림픽의 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죽헌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와 체험행사가 인기를 끌며 'K-컬처'를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며, 강릉시에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성화대를 비롯해 대회 기간 임시로 개관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이 연일 매진되며 신기술을 활용한 동계스포츠 종목 가상 체험도 인기를 끌었습

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 '올림픽 유산 활용'이라는 측면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만, 대회가 끝이 나더라도 올림픽의 유·무형 유산활용을 지속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고제로 남아있습니다.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를 소개하는 '드림 프로그램'은 올림픽 유산활용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설상 및 빙상 스포츠 훈련과 한류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발굴하여 동계올림픽의 개최로서 스포츠와 문화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회를 위해 모든 관계자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응원하고, 화합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번 대회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 유산이 다시한번 들쭉이는 공간이 되었듯 이후에도 올림픽 활용방안이 적극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2024 02 07 ()

강원도민일보

01

강원관광대 자진폐교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재정 악화·학령인구 감소 타격
교육부 폐교 인가 29일로 확정
323명 강동대·4명 강릉영동대로
특별장학금·기숙사·장학금 제공

태백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강원관광대
가 오는 29일 폐교한다.

6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제출한 '강원관광대학교 자진 폐교 신
청'을 인가했다. 학교
법인은 지난달 12일
교육부에 자진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법
인이 밝힌 폐교 원인
은 재정여건 악화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폐교 인가에 따라 학
교법인 분진학원과 강원관광대 재적생
등을 대상으로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재적생 327명 중 323명은 충
북 음성에 위치한 강동대로, 나머지 4
명은 강릉영동대에 특별편입한다. 이
들은 당장 올해 1학기 학적이 바뀐다.

강동대에 대해서는 한 번에 300명이
넘는 인원이 편입하는 점을 고려해 추
가 교원(9명) 확보가 이뤄지며, 시설

과 설비도 확충된다. 또한 강원관광대
와 체결한 특별편입학 업무협약에 따
라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과
기숙사, 통학버스 등도 제공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편입학에 누
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
조 요청 등을 통해 특별편입학을 지원
하고 재적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
이라 밝혔다. 앞으로 강원관광대의 학
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은 한국사
학진흥재단이 담당한다. 강원관광대
졸업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필

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1995년 태성
전문대학이라는 이
름으로 개교한 강원
관광대는 1997년 1
회 전문학사 졸업생

(445명)을 배출했다. 지난 2000년에
는 강원관광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
다. 강원랜드와 여러 차례 협약을 체결
하며 관련 인력을 양성해왔으나 학령
인구 감소의 여파로 신입생이 크게 줄
었다. 학과를 폐교하고, 모집정원을 줄
이는 등 생존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2021년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등 이미 몇 해 전부터 '위험신
호'를 보여왔다.

강원관광대가 결국 폐교하면서 지역
사회 충격도 상당하다. 더욱이 지역사
회 차원에서 회생방안을 강구했던 터
라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될 전망이다.
김주영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은 "지
역과 충분한 논의없이 폐교로 결정돼
걱정이 크다"고 했으며, 함석철 태백상
공회의소 사무국장 역시 "폐교 이후 대
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민엽
▶관련기사 4·12면



“지역 소멸 위기·상권 침체 가속화”

이슈 현장 강원관광대 폐교 지역사회 슬렁

교육부가 6일 입학성 격감 및 운영난 심화로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신청한 강원관광대 폐교를 인가함에 따라 태백지역사회가 인구 감소 및 지역상권 침체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슬렁이고 있다.

■ 1만여 인제 산실 학령 인구 감소에 백기=태백지역 사회의 버팀목이었던 강원관광대 폐교가 확정됨에 따라 당장 재학생과 휴학생, 교직원 포함 400여명의 인구가 태백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등 400여명 태백 떠나

학교부지 시설 활용안 시급

요양원·연수원 유치 제안

강원관광대는 1995년 3월 개교해 약 1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997년 카지노관광학과를 신설하는 등 입학정원이 1,28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을 채우지 못하며 학교들이 줄줄이 폐교되고 2020

년에는 간호학과만 남았다. 간호학과 역시 신입생 모집난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학교 측은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원재희 총장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정상적인 입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심각한 재정결손이 발생해 교직원의 급여 지급도 어려워 폐교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학교 부지 활용방안 ‘발등의 불’=강원관광대는 한때 최고 2,500명의 재학생이 다녔던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 학교 개교 후 학생들이 넘쳐나자 대학로 주변에는 한우전문점과 음식점, 주점,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섰다.

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으며 대학가 상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 부지 16만5,290㎡(약 5만평)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주민들은 대학 시설을 방치할 경우 도심 속 대형 흉물로 남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4계절 전지훈련단 숙소 활용,

유스호스텔, 노인요양원, 청소년수련시설 유치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함양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태백지역사회 교육의 희망이던 강원관광대 폐교가 확정돼 너무 안타깝다”며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현 학교 부지에 대학을 유치하거나 노인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등 활용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백=김광희기자 kwh635@

강원도민일보

입학할 학생 점점 줄어...도내 대학 4년에 한 번꼴 통폐합

2000년대 이후 지속, 춘교대 가능성
14만명선 붕괴 대학생준 위기감 고조

강원관광대 폐교 소식이 알려지며 강원도내대학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특히 대학을 지탱할 신입생 자원이 급속도로 줄고 있어 대학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본지 취재결과 2000년대 이후 강원도내 대학은 4년에 한 번꼴로 통폐합이 발생하고 있다. 국립대가 시발점이 됐다. 지난 2006년 삼척대가 강원대와 통합하며 강원대 삼척캠퍼스로 이

강원도내 대학 통폐합 역사

2006년	삼척대, 강원대와 통합
2007년	강릉대·원주대 통합
2012년	동우대, 경동대와 통합
2018년	한중대 폐교
2020년	상지영서대, 상지대와 통합
2024년	강원관광대 폐교

를 표를 바꿨고, 2007년에는 강릉대와 원주대가 대학을 합친 후 2009년 강릉원주대로 재출범했다. 지난 2012년에는 동우대가 경동대에 흡수됐다.

타 대학과의 통합이 아닌 폐교도 발생했다. 2018년에는 한중대가 폐교하

며 지역내 큰 충격을 안겼고, 2020년에는 상지영서대가 상지대와 통합했다.

앞으로도 강원도내 대학 간 통폐합은 활발할 전망이다. 성격이 다르지만 난해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된 강릉원주대와 강원대는 두 대학을 ‘통합 강원대’로 합칠 예정이다. 춘천교대도 타 대학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대학간 통폐합 발생 원인으로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꼽힌다. 대학에 입학할 학생 자원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대학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내 학생 수는 가파르

게 줄어들고 있다. 본지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27만690명이었던 강원도 내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 23만73명을 기록해 10년 사이 4만617명이 줄었다. 학생감소는 이후 가속화돼 5년 뒤인 2015년에는 3만명(2만9426명)이 줄어 20만647명을 기록했고, 재차 5년이 흐른 2020년에는 14만2740명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급락(-12만7950명)했다. 하락세는 그치지 않고 반복돼 2022년에는 14만명이 붕괴한 13만8227명을, 지난해에는 이보다도 더 줄은 13만4514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도와 비교해 채 절반이 안되는 숫자다. 이에 대해 강원도내 대학 관계자는 “입학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이 살아남기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민영

2024 02 07 ()

02

강원도민일보

삼성 평택공장 찾는 김 지사, 반도체 인력양성 협업 모색

오늘 도방문단 생산현장 참관

2026년 교육센터 준공 목표

장비·교육인력 지원 등 논의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원주 확장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지사가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하기로 해 삼성과의 후속 협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강원도는 지난해 10월 도청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강원-삼성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1월 김지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 참가, 삼성전자 전시관을 가장 먼저 찾아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과 강원 반도체 산업 협력 방안을 재논의하는 등 삼성측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김진태 지사와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은 7일 오후 삼성 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라인 설비가 모두 구축된 핵심 생산 거점이다. 현재 1~3공장이 들어섰고, 4공장과 5공장이 건설 중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생산, 후공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전초기지로 통한다는 점에서 강원형 반도체 산업과의 접점 찾기에 관심

이 쏠리고 있다. 김지사 등 도방문단은 이날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에선 박승희 사장과 반도체 부문 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김지사와 일정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반도체 인력양성 협력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강원-삼성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을 맺고,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협조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 배출 노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강원도가 조성하는 반도체 교육센터와 관련해 장비·교육 인력 지원, 교육 과정 개발 협력 등을 삼성전자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 교육센터(총사업비 426억원)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핵심기관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착공식을 갖고 원주 학생동에 건립될 예정이다. 김택형

강원도민일보

18년 만에 의대생 2000명 증원, 도내 찬반의견 팽팽

2024 02 07 ()

04

정부 내년부터 의대정원 확대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이 된다. 2006년 이후 18년만의 변화다. 불과 위기에 내몰린 지역의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2025년부터 정원 2000명 늘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내에

도내 267명→439명 가능성

도의사회 반발 의협 투쟁 동참

시민·보건의료 노조 증원 찬성

"지역의료 인력 확보 출발 기대"

서는 총 4개의 의과대학에서 총 267명의 의대생을 받고 있다.

이런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전국 의대 정원이 2000명가량 늘어나게 되면 증가 비율에 따라 도내 의대 정원도 늘어나 기존 267명에서 43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등을 비롯해 강원도내 의대의 증원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대학별 정원은 발표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안이만 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입 수시모집이 9월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 말까지는 확

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대와 한림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가톨릭관동대 등 도내 대학들은 이번 정부 방침에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림대 관계자는 "우선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지만 대학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증원 결사반대" ... 의협 총파업 돌입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이날 오전 의대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대 증원 결정이 발표되자 이필수 의협회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도내 의료계에서도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사 수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는 기대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했기 때문에 의료계의 대응 방향과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의대 전공의 A씨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강원도 전공의들도 대대적인 결정에 따라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답했다.

■증원 환영 입장도

반면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보건 의료노조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의사 수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6일 강원대병원에서 만난

박모(62)씨는 "20년 동안 강원대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람이 너무 많고 특히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데 쉽지 않다"며 "도서산간 보면 의사들 없어서 난리나고 있는데 의대 증원하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오모(39)씨도 "아이들 때문에 오는데 강대병원은 소아과 같은 경우 항상 예약이 많은 편"이라며 "예약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할 때도 있어 의대 증원은 조금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명오 보건 의료노조 강원지부 조직 부장은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10~20년 후 발생할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1000~3000명 규모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늘려가는 정책과 더불어 지역 의료, 공공 의료의 살릴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이태윤

강원도민일보

필리핀 계절근로자 파견 중단 도내 지자체·농민 난감

2024 02 07 ()

05

인권침해·불법 브로커 등 이유

업무협약 11개 시·군 수급 차질

홍천·횡성군, 현지서 대책 논의

필리핀 정부가 인권침해, 불법 브로커 문제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강원도내 지자체와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6일 법무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11일 우리나라에 계절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지속적

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불법 브로커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필리핀으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조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74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약 3000여명이 필리핀 인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은 도내 16개 시·군 중 고성, 정선, 철원, 원주, 강릉 제외한 11개 시·군은 필리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거나 결혼 이민자 추천을 받아 필리핀 근로자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만일 이번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필리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도내

지자체는 당장 농작업을 시작하는 3월 뿐 아니라 농번기 인력 준비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3~4월에 입국하는 인원의 경우에는 늦어도 2월 말까지 필리핀 정부가 송출을 재개해야 입국서류 준비, 비자 발급, 비행기 표 예약 등이 이뤄져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도내 농민들은 당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김연호 양구군외국인고용추진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했으나 아직 국에서 전달 받은 내용은 전혀 없다"며 "만약에 3월이 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대책도

없고 현장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신북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유용현(50)씨도 "원래 일하던 필리핀 근로자들이 '사장님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 좀 써주세요'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지금 채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답을 줄 수가 없다"며 "병명 농번기가 들어가게 되면 혼신이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춘천의 경우에는 기존 3월 입국할 예정이었던 필리핀 근로자를 캄보디아 근로자로 변경해 배정한다고 밝혔다. 평창군도 당초 필리핀과 라오스 지자체로부터 수급을 받기로 한 것에서 필리핀 인원을 라오

스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한 상태다. 평창군 관계자는 "일단 라오스 인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고 평창 고랭지 갈은 경우에는 6월에 인력이 필요한데 필리핀 근로자를 원하는 농가도 있고 그 이후 상황은 우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천군, 횡성군의 경우에는 직접 필리핀에 가서 해당 지자체와 대책을 논의 후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천군 관계자는 "홍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필리핀 지자체에 가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확답을 받았다"며 "일단 농민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전달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호·이태윤

2024 02 07 ()

09

강원도민일보

춘천시립미술관 2028년 개관 목표 속도전

시, 설립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련조례 제정·미술품 확보
각계 의견 수렴 후 부지 선정
문체부 사전평가 준비 최선

춘천시가 2028년 시립미술관을 개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에 속도를내고 있다.

육동한춘천시장은 6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시립미술관은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마땅한 부지 등을 찾지 못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립미술관 건립에 머뭇거리리는 사이 춘천 출신의 권진규 조각가의 작품이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되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춘천시는 육동한 시장 취임 이후 시립미술관 건립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시립미술관 건립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미술사를 전공한 학예 연구사도 채용했다.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단계별 이행안도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용역에 돌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지선정과 운영 방향을 확정,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술품 수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춘천의 근현대

미술사 자료 정비와 함께 소장 미술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내실있게 준비한다는 게 춘천시 계획이다.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는 공립박물관·미술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미술관을 건립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을 평가하는 사전평가들의 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난 2016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신청한 58개 신청관(재신청 포함) 중 25건만이 통과(2023년 하반기 기준)하는 등 기

준이 엄격하다.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면 투자심사, 예산편성, 실시설계 등을 거쳐 춘천시립미술관은 2027년에 착공한다. 개관 시기는 2028년이다.

시립미술관 건립의 최대 장애물이 부지선정인 만큼 춘천시는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고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지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육동한춘천시장은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은 잃어버린 춘천 작가의 뿌리를 찾는 작업”이라며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춘천 관광 활성화에도 부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2024 02 07 ()

02

江原日報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대기업 유치' 관건

올 상반기 지정을 앞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사실상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뛰어들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경기, 대전, 충북에 이어 전국 3~4위권으로 나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특화단지의 핵심이 첨단산업 집적화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라는 점에서 앵커기업(주도적 역할을 할 대기업) 유치가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 접수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달 말 마감된다. 강원자치도와 춘천시, 홍천군은 지난해 12월 범도민 유치지원협의체를 결성하며 일제감치 도전장을 냈다. 경쟁 지자체는 수도권 외의 인천광역시와 경기 수원 고양 시흥, 대전광역시, 충북 오송, 전북 전주 의산 정읍, 전남 화순, 경북 안동 포항 등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강원 지역 바이오산업체는 총 45곳으로 경기, 서울, 대전, 충북 다음이다. 수도권 제외 시 전국 3위권이다. 도내 바이오 전문인력은 3,211명으로 서



◇강원자치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현황 보고회가 6일 도청 제2별관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 백창석 춘천부시장, 오홍수 홍천부군수와 혁신기관 및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올 상반기 선정 전국 지자체 유치전 사활 道 적극 대응 나서
첨단산업 집적화 민간투자 확대 핵심 앵커기업 유치전략 필수

울, 인천, 충북에 이어 전국 4위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경우 강원자치도가 1,223억원으로 인천,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다음으로 많다.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16조는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원 바이오산업

의 규모와 경쟁력,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결국 인천 송도, 충북 오송 등과 경쟁하기 위해선 유망한 기업의 참여 여부가 결정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청대상을 ‘선도기업과 공급·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로 규정해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자치도와 춘천시, 홍천군은 6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추진현황 보고회를 갖고 유치 전략을 점검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약 20년간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며 강점이 많다. 춘천, 홍천만의 강점과 특화전략의 확장성을 강조하고 도민의 열망도 잘 알리며 평가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2 07 ()

11

강릉 주문진 5일장 '복적' 양손 가득 명절 준비

평일도 손님 발길 명성 되찾아
제수용품 등 저렴 넉넉한 인심
지역 경제활성화 시민 '웃음꽃'

“명절은 명절인가 봐요.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오네요.”

설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부활한 강릉시 주문진 5일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활한 주문진 5일장에는 양양장과 북평장 등 인근 상인들까지 몰려오며 점포수가 20여개 이상 늘었고, 명절이나 주말 등과 날짜가 맞물리는 날이면 기존 수산시장 방문



6일 설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부활한 강릉시 주문진 5일장에는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객까지 더해져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과거 명성을 서서히 되찾고 있다.

6일 설 명절 대목을 맞은 주문진 5일장터는 설 선물과 제수용품, 명절 음식 등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

적이면서 활기를 띠었다.

이날 장터 골목마다 양손 가득 검정 색 비닐봉지를 들거나 바퀴달린 손수레를 끌며 장을 보는 손님들로 종일 시끌벅적해 명절이 다가왔음을 실감

케 했다. 넉넉한 시장 인심에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 시민들은 밝은 표정으로 시장 곳곳을 누볐다.

채소장사를 하는 상인이모(63)씨는 “평일인데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걸 보니 확실히 명절 앞둔 장터답다”며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시민 이금순(70)씨는 “제사상에 올릴 문어와 과일 등도 사고 부활한 주문진 5일장 구경하기 위해 검사점사 일부러 찾아왔다”며 “올해 과일값이 너무 올라서 상에 올릴 품질 좋은 배 등은 3~4개 날개로 구매하고, 가족들과 두고두고 먹을 과일은 조금 흠집이 났지만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연제

강원도민일보

2024 02 07 ()

06

설 명절 널뛰는 물가잡기 강원도 나섰다

민생안정대책 발표 안정 유도
배추·무 등 성수품 20가지 집중
유가 상승세 귀성길 부담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에 이어 기름값마저 올라 강원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민생안정대책이 치솟은 도내 물가를 안정시키길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이 포함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등 20가지 성수품에 대해 설 명절 중점관리품목 중심 물가동향 집중관리로 나선다. 더불어 강원물가정보망을 통한 가격동향 관리 및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품목, 계약재배물량 등 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제고한다. 실제 이날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를 보면 강원지역 사과(후지·10개·춘천중앙) 10개 소매가격은 3만6600원으로 1년 전(2만2500원)보다 62.6% 뛰었다.

또 설 명절 전통시장 고객 유치 확대

에도 주력한다.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접근성 증대를 위해 주차를 허용하고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더몰을 통해서도 설 명절 맞이 고객감사 기획전 및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현재 595개소)해 물가안정을 유도한다.

도의 물가 안정 대책들이 펼쳐지는 반면, 최근 유가 상승으로 도민들의 명절 고향길 부담은 가중된 상황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후 5시 20분 기준 강원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당 1609.86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일(1당 1602.97)부터 1600원대에 진입해 상승 중이다. 주간별로는 지난 달 다섯째 주 1당 1593.56원을 기록하며 17주만에 오름세로 전환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설 연휴 기름값 상승세가 예상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는 “현재 민생이 어렵지만,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모든 도민이 걱정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우

2024 02 07 ()

江原日報

10

춘천 학곡지구 사업 승인 14년 만에 연내 준공

【춘천】춘천 남부권역 핵심 도시개발 사업인 학곡지구가 연내 준공을 눈앞에 뒀다.

2010년 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이후 14년 만에 마지막까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던 공공 용지와 학교 용지는 기관 이전, 학교복합시설 추진으로 실마리를 찾았다.

학곡지구는 동네면 학곡리 산 12번지 일원 32만㎡ 부지에 주거, 상업, 공공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새로운 시가지로 조

도청 신청사 고은리 이전 확정에 기관 입주 급물살 4곳 계약 앞뒤... 학교복합시설 건립 정부 공모 신청

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공공 용지 4개 필지의 분양을 위해 기관 접수를 이어왔고, 4개 기관이 입주 의사를 밝히면서 이르면 3~4월부터 차례로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각기관 별 수요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 변경 절

차를 밟고 있다. 공공 용지가 주인을 찾아감에 따라 학곡지구 준공 시점도 10월로 계획됐다.

학곡지구 기관 이전은 강원 자치도청 신청사 이전 장소가 동네면 고은리로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도 행정 중심이 이동하면서 인접한 학곡지구 공공 용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났고 각 기관에서 용지 매입의 시를 시에 타진하는 것으로 상황이 뒤바뀌었다.

또 다른 미분양 공간인 학교 용지는 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이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학교복합시설은 기존의 학교 기능인 교육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돌봄·체육·문화시설 등을 더하는 개념으로 최대 국비 3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다음달 교

육부에 공모 서류를 제출, 상반기 결과 발표를 기다린다.

이와 함께 동네면 일원에 조성되는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지장물 기본 조사 등의 토지 보상 절차를 수행한다. 다원지구는 4,0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건설이 계획됐다.

윤여준 시 도시건설국장은 “지역의 큰 미래를 위해 대규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2 07 ()

04

올해 1월 역대 6번째로 '포근'

예년보다 1.9도 ↑ ... 오늘 흐름

올해 1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듯한 남풍이 자주 불어 역대 6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지방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강원 월간 기후정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강원도 평균기온은 -1.8도로 평년(-3.7도)보다 1.9도 높았다. 최저기온도 -6.2도로 평년보다 2.5도 높았다. 올해 1월 중순까지 시베리아 지역의 찬 대륙고기압강도가 평년보다 매우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에서 발달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듯한 남풍이 자주 불어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 일수도 4.9일로 작년(8.7일)보다 적었다.

강수량은 영서 중심으로 매우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올해 1월 강원도 평균 강수량은 15.4mm 평년(28.7mm)보다 적게 내렸다. 특히 강원 영서의 경우 10.7mm로 평년 범위(12.0~26.5mm)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었다. 강수일수도 5.0일로 평년보다 1.5일 적게 나타났다.

한편, 7일 도 전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도내 아침최저기온은 영서 -5~-1도, 영동 -3~-1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4~5도, 영동 2~4도로 예보됐다. 박재혁

강원도민일보

2024 02 07 ()

/ 19

소상공인 부채 심상치 않다

-대위변제3배 증가, 정상화대책 고민해야

강원 도내 소상공업체의 경영에 비상 등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버텼지만, 고금리와 불황 장기화의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은 부채 상환 능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채 자료에 나타난 업체의 경영 지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업 지속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행정 당국과 경제계는 소상공업체의 현실을 위기로 인식하고, 정상화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업체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부채 규모입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대위 변제액은 548억 1800만원으로, 전년 177억 2500만원보다 370억 9300만원, 209.3% 늘었습니다. 1년 동안 강원신보가 대신 갚아준 도내 소상공인의 대출액이 370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대위 변제 건수도 폭증 양상을 보입니다. 지난해 변제는 3171건으로 전년 951건 대비 2220건, 233.4%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 금액과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고 금액은 1084억 3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만에 701억 9800만원, 183.6%

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건수도 6507건으로 4355건 증가했고, 비율도 4.16%로 2.81%p나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도내 소상공업체가 경영에 한계를 보입니다. 영세한 자본력에, 관광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기업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한 데다, 대대적으로 집행된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분석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끄는 기반 산업이 허약한 강원도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불황의 터널을 헤쳐 나가기엔 자본력과 영업 환경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한다면 강원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강원도와 지자체는 현재 소상공업체의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부채 부담을 줄일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수렴하고, 함께 해법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江原日報

2024 02 07 ()

/ 19

가정 폭력,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야 근절된다

설 연휴 기간 도내 가정 폭력 신고가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설 연휴 기간 접수된 가정 폭력 112 신고는 하루 평균 27.3건으로 평소(2022년 일평균 17.8건) 대비 53.4% 많았다. 도내 설 연휴 가정 폭력 신고(일평균)는 2021년 21.3건, 2022년 24.4건, 2023년 2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흩어졌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는 명절에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명절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 평상시보다 과도한 집안일 등으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은 명절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가족 내 분쟁 중 하나다. 이러한 갈등이 위험한 이유는 일시적인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 폭력이나 명절 후 이혼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폭력을 행사할 때 느끼는 좌절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 폭력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적 현안이다.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학습된 폭력 행위는 사회와 가정에서 재생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가정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가정이라

는 폐쇄된 장소에서 은밀히 일어나 제3자의 개입이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로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폭력 형태 또한 다양하고, 날로 그 심각성도 더해지고 있다. 가정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체다. 그러므로 폭력을 쓰는 주체의 처벌도 필요하지만 가정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그 가정을 지키는 제도 마련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 역시 그가 당하는 폭력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최근 가족 해체로 가정 폭력, 노인·아동 학대, 이혼, 고독사 등 각종 사회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가족 붕괴는 단순히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는 최소 공동체인 가족이 무너지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 일을 맡을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가정 문제를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적인 사안으로, 혹은 가족 구성원들이 좀 더 인내하고 생활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로 생각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더욱 되새기는 명절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가정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7 ()

/ 19

의대 증원 지역인재 선발로 이어져야

-10년 후라야 의사 배출, 그사이 지역의료 공백 메워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 정부에서 대학 측을 상대로 증원 수요를 파악한 결과보다 적은 숫자이지만, 번번이 의사단체 요구에 밀려 증원에 실패해 온 오랜 관행을 단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의대 증원은 실상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2006년 이전까지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으며, 의약분업을 기회로 2006년 의대 정원이 줄면서 3058명으로 내려앉은 이후 지금까지 동결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초래했습니다. 의사 급여를 인상하고, 채용 공고를 무려 10차례 넘게 올려도 지원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의사가 없어 폐과 수순을 밟아야 하는 진료 과목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은 재활의학과에 의사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영월의료원에서는 신경과 및 신경외과에 지원자는 의사가 없어 장기간 휴진이 이

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의사 단체에서는 집단행동이 나올 수도 있으나, 생명과 건강을 불모로 하는 집단행동을 용인할 수 없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국민 대다수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의대 증원 찬성을 및 증원 폭이 2000명 이상 대폭이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만큼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체감했다는 방증임을 의사단체에서도 수용할 때입니다.

한편 이번 의대 증원 몫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국립대의대 중에서도 정원이 가장 적은 강원대의대를 필두로 도내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향후 지역의료기반을 보완하는 실효를 내려면 지역인재의 대폭 선발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의사 공급에 숨통이 좀 더 트일 것을 기대해 보게 되지만, 당장의 문제는 지금입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정책이 더 붕괴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의료 대책을 내놓고 인적, 물적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4 02 07 ()

/ 19

인구소멸 대응 본보기 모델, 화천군의 ‘책임돌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화천군(군수:최문순)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오는 27일 개관된다. 2019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8억원 등 총 216억원이 투입됐다. 우리가 화천군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책임돌봄’ 시설을 만들어 맞벌이 부부의 큰 고민인 초등 저학년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화천군의 ‘책임돌봄’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롤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공간통합, 스마트돌봄, 온종일 돌봄, 안전이 결합됐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과 함께 화천 커뮤니티센터를 방문, “화천이 교육 1등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화천군이 천군만마를 만난 격이다. 화천군은 이를 내실 있게 운영, 저출생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책임돌봄’ 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면 학교는 자연스럽게 활기를 찾고 지역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책임돌봄’은 초등 1,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방과 후 오후 2시30분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표현영어, 아동체육, 독서, 스피치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화천군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이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를 떠나려는 청년들을 붙잡고 지역 학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저출생으로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다.

어린이집이 매년 2,000곳씩 문을 닫고 있다. 2013년 전국에 4만3,700곳이 있었는데, 약 10년 만에 2만 8,900곳으로 줄어들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4년 뒤인 2028년이면 전국 어린

이집과 유치원의 30%가 더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힘겨운 육아를 그나마 지탱해 주던 보육 인프라 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화천군의 ‘책임돌봄’은 심각한 학생 수 감소로 붕괴 위기에 빠진 농어촌 학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천군은 앞으로 ‘책임돌봄’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교육 당국은 화천군 ‘책임돌봄’에서 나온 성과를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 지역별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공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욕구도 커질 것이다. 화천군의 ‘책임돌봄’이 저출생·지역소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잘 운영되면 공동화돼 가고 있는 지역에 희망과 회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천군의 ‘책임돌봄’을 응원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오는 27일 개관

초등 1, 2학년 100명 대상, 학기·방학 중 운영

질 좋은 프로그램 진행, 전국 지자체와 공유를